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고 미 영

(서울신학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학대받은 아동들의 경험을 연구한 현상학적 연구로 아동들의 생활세계의 체험을 아동의 입장에서 이해하고자 한 것이다. 아동학대는 저항할 수 없는 힘의 구조에서 받는 억압과 자유로운 발달환경의 박탈이다. 학대란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경험한 매우 왜곡되고 부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아동에게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내면세계를 만들어 놓았다. 학대받은 아동들은 그러나 탈출구가 없는 억압 속에서도 그들 나름대로 생존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구사하며 가족 지향적인 삶을 원하고 있다. 현상학적 반성을 통해 학대아동의 경험에 대한 8가지 본질적인 주제를 찾았고 이 주제들을 바탕으로 학대 경험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 주제들은 학대받은 아동을 위한 상담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아동학대, 학대 경험, 아동학대 상담, 질적연구, 현상학적 연구

1. 문제 제기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에서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국의 아동학대 실태 조사 연구에 따르면 모든 형태의 학대를 포함할 때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발생률은 43.7%로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지난 2001년 이후 2년 6개월간 발생한 아동학대는 6000건에 이르고 사망한 아동도 13명이다(조선일보, 2003.10.11). 학대 유형으로는 두 가지 이상의 학대가 결합된 중복학대가 35.5%로 가장 많았고 부모의 방임이 32%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보고에서는 신체적인 학대는 913건 15% 정도로 나타났으나 연구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신체적 학대는 적용하는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03-B 00157).

기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거나 면접대상자가 부모인 경우에 나온 수치는 실제로는 상당히 감소된 수치를 나타낸다고 보아야 한다(홍강의, 2000A). 정서적인 학대와 방임률도 홍강의의 연구에서는 대략 20%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 신체적, 성적 학대에만 관심을 쏟아온 사회에 놀라운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훈육의 형태로서 체벌이 70-80%에 달하며 학대라고 인정하는 구타나 폭행이 23.5%에 달한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가정 내에 신체적인 폭력이 훈육, 학대형태로 만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동들은 이런 형태의 신체적 문제해결 방식을 학습하고, 사회적으로도 이를 허용하는 분위기로 후에 어른이 되었을 때 똑같이 아동 양육, 부부관계에서 이것이 반복되고 만연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아내구타 빈도가 30-40%로 나타나고 있음이 이를 증명하는 것이다.

아동의 경우 연령이 어릴수록 학대사실을 숨기거나 저항할 수 없어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학대 후유증은 학대의 빈도가 높을수록 더 지속적이며 심각하다. 학대 아동에게는 문제행동과 정서적인 문제가 나타나는데 경계선 이하의 지능이 약 20%로 인지 기능의 저하도 학대 빈도나 지속성과 관련되어 있다. 신체적 학대가 신체적인 상처, 불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능발달, 행동발달, 정서발달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낸 연구보고서(2000)에서 현재 한국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정부차원의 법과 아동보호체계 운영에 관한 개입과 민간차원에서 아동권익신고소, 학대예방협회, 쉼터, 어린이 보호재단, 상담소의 활동을 들고 있다. 그 중에 상담과 관련된 서울특별시립아동상담소의 활동은 구체적인 언급 없이 부모교육을 통한 아동에 대한 이해 높이기, 문제아동 예방과 올바른 양육태도 함양, 부모개별상담 등을 보고하고 있어 아동중심이 아닌 부모중심의 상담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아직까지 괄목할만한 성과를 끌어내지 못했다. 학대받은 아동을 돕는 방법을 개발하는 단계에 있는 우리로서는 아동의 경험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학대의 영향에 대한 보고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아동 스스로 학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하고 있는지에 관한 아동의 관점을 고찰한 연구는 찾아보기 드물다. 보다 효과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학대를 경험하는 아동의 내적 관점을 조명하고 학대와 관련된 상담의 기초 자료를 찾아내는 일이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한국 사회에서는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대처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아동학대의 실태 조사와 후유증에 관한 논문들이 주를 이룬다. 실제로 학대를 받은 아동에 대한 치료나 연구는 매우 한정적이다.

아동들의 학대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학대의 결과로 인한 신체적, 정서적 사회 행동적 문제들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조명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그러나 학대받은 아동을 일정한 시각에 고정시켜 유형화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찍는데 일조하기도 한다. 또한 치료를 위한 실질적인 자료로 사용하

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학대받은 아동이라 해도 각각 발달적 특성이 다르고 학대와 관련된 환경적 요소들이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양적 연구들은 이러한 개별적인 특성들보다는 보편화된 특성에 치중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아동들의 개별화된 학대 경험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아동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는 내적 시각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적 시각의 조명은 학대받은 아동들과 그 가족을 위한 상담치료를 위한 좋은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이런 연구는 희박한 편이다.

본 연구는 아동의 입장에서 보는 학대 사건의 경험을 연구한 것이다. 따라서 연구 방법은 인간 경험을 보다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대상자의 사고, 지각, 느낌에 대하여 조명하는 질적 연구 방법이 적절하다. 질적 연구 방법은 다양하나 그 중에서 현상학적 방법은 대상자의 언어, 신념, 문화 그리고 사회적 관습 등에 내재해 있는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벤 데넨, 2000). 오늘날 인간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서 당사자의 내적 경험을 심도 있고 생생하게 이해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서 현상학은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아동 학대라는 현상에 대해 그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의 생활세계에서 자료를 얻고, 아동들의 의식을 상호주관성을 통하여 본질구조로 파악하는 일련의 현상학적 반응을 통해 학대 경험에 대한 아동들의 내면세계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양진향, 2001:33). 따라서 본 연구는 현상학적으로 아동의 내면에 접근하여 학대를 아동의 입장에서 밝혀 보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선행연구

학대 발생의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아동변인, 부모변인, 사회경제적 변인으로 나누어 연구가 진행되었다. 대체로 부모의 변인과 사회문화적 변인에서는 일관성 있는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부모 변인으로는 계부모, 양부모, 편부 슬하에서 심한 학대행위가 발생했으며 부모의 정신적 미성숙과 양육경험의 부재가 지적되고 있다(김혜영, 1990; 안동현·홍강의, 1987). 특히 본인의 학대 경험과 정서 상태, 기질, 알코올중독, 부적절한 양육 전략은 대표적인 부모의 변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Schaaf and Mccanne, 1998) 사회문화적 변인으로는 낮은 교육수준과 낮은 사회계층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김혜영, 1990; 신영화, 1986; 권자영, 1991). 또한 체벌을 허용하는 문화, 지역사회로부터의 고립, 매스미디어의 폭력성, 성역할의 전형화, 개인권리에 대한 극단적 가치 등이 사회문화적 변인으로 연구되고 있다(Kilpatrick and Williams, 1998).

아동 변인으로는 아동의 성별, 연령, 기질, 건강상태, 장애 및 문제 행동, 출생 상황들을 학대와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장화정, 1998). 학대받은 아동에게는 학대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특징들이 나타난다는 보고도 있다(Kolko, et al. 1988). 그러나 아동 변인에 관한 연구들은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아동에 대한 이해는 다른 변인에 비해 부족한 편이다.

국내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연구는 주로 학대의 영향과 후유증에 관한 연구들이 수 있다. 박근혜(1999)는 폭력의 대물림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아동들이 가정에서 학대를 받음으로써 폭력을 학습

을 하게 되며 성인이 된 후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학대받은 아동은 인격장애, 판단력과 사고장애, 학습장애, 대인관계의 실패, 적응장애 등 정신적, 신체적 장애와 공격적 성향이나 소심하고 우울한 비사회적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는 등 정서, 행동에 여러 장애가 나타났다(김양희, 1998).

심한 학대를 받은 아동들은 신체화 증상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고 신체적 변형, 발육부진, 성장장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김광일, 1988). 이러한 신체적 후유증은 나머지 일생에 오랫동안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심각한 학대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홍강의, 2000B). 신체적 영향 외에도 학대로 인해 아동들은 자아개념, 세계관, 감성적 능력이 심히 왜곡되며 그들의 인식적, 정서적인 지향이 바뀌어 어떤 외상을 창출해 내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홍은주, 1997). 또한 김정준(1986)은 학대받은 아동의 86%가 주의 산만을 보이고 75%는 공격성을 60% 이상이 파괴적, 반항적이고 48%가 잘 웃지 않고 위축되면 수동적인 48.3%는 부정적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외국 문헌에서도 학대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적, 사회행동적, 심리정서적인 장애를 많이 다루고 있다. 학대받은 아동들은 인지적 결손이 심각하여 낮은 학습 능력을 보인다. 이 아동들은 특히 언어 기술이 가장 많은 손상을 받는데 특별히 민감하거나 표현적인 언어의 사용에 지장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였다(Coster et al., 1989; Fox et al., 1988; McFadyen and Kitson, 1996). 이런 언어 발달의 지체는 학대 아동들의 공격적이고 반항적인 행동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더욱 중요시된다(Burke et al., 1989). 아동의 공격성과 비행은 신체적 학대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Lewis(1992)는 신체적 학대가 아동으로 하여금 충동성, 과민성, 지나친 경계심과 의심을 불러일으키며 자신과 타인들의 고통을 인식하는 데 장애를 유발한다는 가정을 펼쳤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학대받은 아동들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일반아동들 보다 적게 시도하며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다수 사용함으로써 다른 아동들로부터 호의를 얻지 못하였다(Haskett and Kistner, 1991). 신체적 학대를 당한 아동들은 공격적 성향이 뚜렷하며 이는 또래들로부터 고립되고 거절당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Salzing et al, 1993; Bolger and Patterson, 2001). 신체적 학대를 받은 아동들이 공격적 행위를 할 위험성이 높은 이유는 사회적 정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왜곡된 패턴을 습득하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Dodge, Bates, and Pettit, 1990). 예를 들면 학대 아동들은 일반 아동들에 비해 상대방의 행위를 적의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적의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일반 아동보다는 신체적 학대를 받은 아동들이 적의를 아버지의 탓으로 돌렸고, 심하게 고질적으로 학대받은 아동들은 어머니, 교사, 친한 친구, 알지 못하는 또래들 모두에 확대하여 적의를 품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고된다(Grus, 2003). 학대받은 아동들은 폭력적이고 범죄에 빠지기 쉬운 청소년, 성인으로 자라난다는 보고도 있다(Herrenkohl et al., 1997; Widom, 1989). 또한 자살을 시도하거나 흡연, 마약 성적비행에 빠지는 경우가 다수 있다(Gamefski et al, 1992, ;Kaplan et al, 1997; Riggs et al, 1990). Flisher 등은 신체적 학대를 받은 아동들이 광범위하게 심리적인 장애를 보였는데 그 중 특히 낮은 사회적 기술, 우울증, 행동장애, 반항성 장애, 광장공포증, 과민성 불안장애, 일반적 불안 장애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Green(1985)은 학대로 인한 아동의 자아기능과 자아개념의 손실을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심리

정서적 후유증이라고 보았다. 학대받은 아동들은 슬픔을 많이 나타내고 낮은 자존감과 낮은 자기 가치를 보였다(Cerezo and Frias, 1994). 학대 유형에 따라 다른 반응을 나타낸다는 연구도 있는데 성적 학대는 낮은 자존감과 정서적 학대는 또래와의 관계 형성에서 어려움을 나타냈다고 밝히고 있다 (Bolger, Patterson, and Kupersmidt, 1998).

4. 연구문제와 과정

1) 현상에 대한 지향과 연구 문제

어떤 현상을 지향한다는 것은 언제나 삶에서의 어떤 특정한 관심이나 사회적 지위 혹은 조건이 이미 함축되어 있다(벤 매년, 2000). 본 연구자는 사회복지사로서 아동의 학대 경험을 이해하고자 한다. 연구 질문은 ‘신체적 학대를 당한 아동의 경험의 본질은 무엇이며 이러한 경험의 본질이 학대에 관해 밝혀주는 것은 무엇인가?’로 설정하였다. 여기에서 학대는 신체적 학대에 국한시켰는데 현재 어린이 보호기관이나 시설에 가장 쉽게 발견되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는 동시에 일어난다고 볼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 학대라 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2) 연구참여자와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02년 10월부터 2003년 6월까지였으며 자료수집 방법은 참여자와의 심층면담과 관찰이다. 먼저 기관을 방문하여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와 집단상담에 참여하고자 하는 참여자를 구했다. 한 기관은 아동학대 예방센터의 성격으로 부모들의 동의하에 연구와 상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아동 5명을 기관 워커들을 통해 모집하였다(참여자 1-5). 그리고 다른 기관은 아동학대 보호시설로 이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 중에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아동으로 기관 수퍼바이저와 담당워커의 조언을 받아 5명의 아동(참여자 6-10)을 추천 받았다.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학대경험에 관련된 간략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참여자	연령	성별	학대유형	가정형태	학대경험
참여자1	11	남	신체적 학대	부자가정 (이혼)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으로 구타당함. 모의 가출 후 현재도 아버지의 구타가 예전처럼 심하지는 않으나 지속되고 있음.
참여자2	11	여	신체적 학대	재혼가정 (계모)	친모는 친부 교통사고시 도주. 장애인인 친부는 현재는 조선족 계모와 재혼함. 아동은 숙모에 의해 4-7살 때까지 영주에서 키워지다가 후에 서울로 올라와 친부와 합친 후로 지속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받아왔음. 도벽 심하고 가출을 반복함.

참여자3	10	여	신체적 학대/ 방임	친부사망	모는 재혼하였으나 아동과 동생을 보육원에 맡겨 기르고 한달에 한 번씩 방문. 신체적 학대는 친부 로부터 받았으며 친부가 매우 폭력적이었던 것으 로 알려져 있음. 모는 아동들에 무관심하다고 함.
참여자4	11	여	신체적 학대/ 방임	모자가정 (부 사망)	친부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받았으나 친부사망 후 친모와 살고 있음. 모는 현재 남자친구가 있으나 결혼하지 않음. 아동은 오빠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나 오빠도 부를 닮아 아동에게 폭력적임.
참여자5	10	남	신체적 학대	부자가정 (모 가출)	부로부터 지속적 신체학대를 받아오고 현재도 구 타당하고 있음. 과잉행동, 도벽, 가출, 공격성이 매우 심함.
참여자6	10	여	신체적 학대	재혼가정 (계모)	아동의 계모에 의해 전신이 맞아 부은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됨. 아동 학대 보호소에서 보호 중
참여자7	9	여	신체적 학대/ 방임	일반가정	아동의 출산 후 모의 건강이 나빠져 양육을 제대 로 못함. 가출 문제로 친모로부터 신체학대 당하 여 신고됨. 아동은 일시 보호 후 귀가 조치됨. 기 관에서 상담받고 있음.
참여자8	8	남	신체적 학대	일반가정	부/모 모두 알코올 중독자이며, 부가 만취된 상 태에서 심한 구타. 아동은 전부터 동네를 배회하 거나, 오락실에서 지내며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 함. 일시 보호 중
참여자9	8	남	신체적 학대	부자가정 (모 가출)	공부방에서 아동의 멍든 얼굴을 보고 신고. 아동 의 부는 만취한 상태에서 아동을 버리겠다고 함.
참여자10	12	남	신체적 학대/ 방임	일반가정	부/모 모두 알코올 중독자이며, 아동의 양육을 소홀히 함. 아동은 A.D.H.D., 특수 교육 대상으로, 도벽과 공격성이 심함. 둘째 형에게 가위/ 칼 등 으로 상처 입음.

연구참여자와의 면담은 아동학대 보호 시설은 아동들이 시설에 상주하는 동안이나 혹은 집으로 돌아갔어도 계속 기관을 방문하는 정기적 만남 시간에 이루어졌다. 아동학대 예방센터는 아동들이 기관에 와서 면담을 했다. 면접의 회수는 대략 2회에서 5회 정도로 자유롭게 시행하였으며 면접시간은 대략 1시간 전후가 걸렸다.

아동 학대는 성격상 비밀 보장을 철저히 해야 하는 관계로 시설에 보호 중인 아동들은 담당 워커들이 모두 직접 시설에서 면담하였고, 아동의 동의를 얻어 면담 내용을 녹음테이프에 담아 연구자에게 전달했다. 이 테이프를 연구자는 내용을 필사하였다. 필사된 원고의 분량은 1회 A4 용지 7-8매가 평균으로 최대 13매 정도의 분량이 나왔다.

3) 연구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 진행 동안 연구 참여자들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참여자와의 면담을 그 기

관이나 시설의 워커로 한정시켰다. 그들은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참여자들을 상담이나 조사를 위해 만나고 있었고 질문은 주로 예정된 정기적 만남의 시간에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질문지를 작성하여 면담할 워커에게 전달하였고 워커들은 반구조화된 질문 형식으로 아동들을 면담하였다. 특히 아동의 부모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서 기관 워커들에게 협조적인 부모를 선택하도록 노력하였고, 초청된 아동이라도 본인의 의사를 물어 참여 여부를 결정토록 하였다.

4) 자료의 분석과정

현상학적 반성의 목적은 어떤 것의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벤매넨, 2000:123). 의미는 대체로 다차원적이고 다층적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파악되는 것은 아니나 인간의 경험의 의미는 잘 구성된 이야기나 산문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다. 인간에 대한 연구는 바로 그가 말한 텍스트를 붙잡고 의미구조를 밝힌다든지, 주제 등의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이렇게 경험을 반성한다는 것은 경험의 구조적 혹은 주제적 측면을 반성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ibid, 125).

본 연구에서 자료의 분석은 몇 가지 구체적인 주제 분석 과정을 거친다. 먼저 녹음된 테이프를 연구자가 여러 번 들으면서 필사된 내용과 얼마나 다른지를 찾아내면서 내용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면담 내용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필사본을 면담 당사자인 기관 워커에게 보내고 내용을 검토하도록 요청하였다. 특히 때로 녹음 상태가 좋지 않거나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부분은 표시하고 워커에게 문의하여 다시 그 문장을 필사해주도록 부탁하였다.

그 다음은 연구자 자신과 대학원생 2명이 함께 또는 각자 필사된 내용을 파악하고 세분법에 따라 문장 혹은 문장의 다발을 의미 구조 단위로 나누어보면서 그 부분의 의미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러한 세분화된 자료는 분석 회의를 거쳐서 그 문장의 의미에 대한 진술들을 각 문장마다 적어 넣었고 그것을 공통된 주제별로 묶어내 따로 정리하였다. 그 이 후에 이 나타난 주제들 간에 비교 분석하여 관련된 주제들과 구분되는 주제 등을 분리시켜서 현상에 대한 본질적 주제를 결정하고 이를 기술하였다.

5)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현상학적 연구는 철학적 배경과 연구 방법에 있어서 일반 양적연구와 구별되며 또한 다른 질적 연구와도 구별된다. 특히 자료수집 과정이 자료 분석과정과 동시에 진행되는 근거이론의 방법과 달리 현상에 대한 포착, 참여대상자가 경험한 현상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Giorgi, 1985). 본 연구를 진행하는데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가 한 노력을 다음과 같다.

사실적 가치(truth value)는 참여자의 경험의 진가를 가늠하는 척도로 얼마나 진실에 근접하였는가의 문제다. 본 연구는 참여자의 워커들이 이들을 면담하도록 하였는데 누구보다 워커들은 아동과 신

뢰관계가 가장 잘 구축되어 있다는 점과 워커들이 아동들을 가장 잘 이해한다는 점을 유념하였다. 학대 아동은 표현력이 매우 떨어질 뿐만 아니라 주체의 민감성으로 말미암아 낮은 사람에게 자신의 경험을 솔직히 말하지 않는다. 아동들이 친밀한 환경과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배려하였다.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사된 자료를 워커들에게 보여주었고 분석 결과를 얻었을 때 자문회의를 통해 기관 워커의 의견을 들었다.

일관성을 얻기 위해 자료 수집 과정에서 워커 외에 아동의 담임교사, 생활지도사, 공부방 교사, 아동과 접촉한 자원봉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자료의 분석과정에는 대학원생 2명이 함께 참여하였고 대학원 세미나를 통해 3명의 다른 대학원생들의 피드백을 얻었다. 그 외에 질적연구 경험이 많고 질적연구를 가르치는 교수에게서 연구의 설계과정에서부터, 자료분석, 결과해석을 자문 받았고 현상학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질적연구자에게 자료분석에 대한 조언을 얻었다. 이 연구를 위한 사전 연구(pilot study)에 본인이 상담하던 4명의 아동과 공부방에서 섭외한 2명의 아동들을 참여시켰다. 이들에게서 질문하는 방식과 질문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수정하였다.

적용성(applicability)은 연구 상황 이외에서 이 연구가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것으로 연구주체와 관련하여 자료를 심층적으로 수집하고 포화시킴으로써 충족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의 진술은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공통적인 면모를 많이 보였다. 따라서 다른 학대 아동들에게서도 이 주제와 관련된 현상에서는 어느 정도 적용이 가능하고 상담의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는 연구대상자가 아동들이라서 질문을 잘 소화하지 못하고 말이 자꾸 끊어지는 것이었다. 따라서 질문자들이 지속적으로 아동을 격려하고,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초점을 잡아주며, 때로는 폐쇄적 질문을 던져야 했다. 그러나 이는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적절한 배려와 아동들과의 대화를 지속하기 위한 맥락적 배경에서 볼 때 필연적 조치였다고 본다. 다른 한계는 주체의 질문이 한정적이었다는 점이다. 질문은 학대사건에 대한 아동의 견해, 아동과 학대자와의 관계, 학대자에 대한 아동의 이해, 친구관계, 아동 자신에 대한 이해,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구축되었고 이 주제를 벗어난 다른 경험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일반적으로 현상학적 연구는 관심 주제에 관하여 제한없이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질문하지만 아동들에게 이런 질문은 거의 의미가 없으므로 적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현상학의 핵심은 얼마나 그 현상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가를 감안할 때 아동이 경험한 학대를 이해하는데 가지는 본 연구의 의의가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5. 연구결과

연구결과에 나타난 주제들과 본질적 주제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주제	본질적 주제
(1) 부모(학대자 포함)에 대한 보호와 정당화	1) 나의 잘못
(2) 나의 잘못	
(1) 잘못된 내용을 잘 모름	2) 예측 불가능
(2) 학대를 유발하는 상황	
(3) 부모의 부적절한 요구	
(1) 부정적 감정들	3) 혼란스러운 감정
(2) 감정처리의 어려움	
(3) 상대방의 감정을 모름	
(1) 소망적 사고	4) 세계로부터의 도피
(2) 모호한 사고	
(1) 부정적 자아상	5) 자존감의 박탈
(2) 학대자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함	
(1) 친구들과의 차이	6) 친구와의 갈등
(2) 친구와의 불화	
(3) 친구로부터의 고립	
(1) 반항하지 않음	7) 혼자서 식임
(2) 침묵하기	
(1) 가정의 불화	8) 가족 지향적인 삶
(2) 가족에 대한 걱정	
(3) 가족에 대한 희망	

1) 나의 잘못

아동들은 학대자의 학대 행위를 되도록 축소해서 나타내려고 하며 부모의 정당한 양육행위로 합리화시키고자 노력한다. 결과적으로는 모든 학대가 본인의 잘못으로 귀결된다. 학대 사건이 부모에 대한 충성심을 가리지 못하도록 사건 자체를 학대로 보지 않으려 한다. 한 가지 예측할 수 있는 배경으로는 말한 것이 알려지면 학대자가 보복할까봐 두려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이유는 아동이 어쩔거나 자신이 의지할 곳은 때리는 부모라도 그 부모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생존 전략의 하나로 학대를 축소하여 보고할 수도 있다.

(1) 부모(학대자 포함)에 대한 보호와 정당화

학대받은 아동들은 학대 사건을 특별한 일이 아닌 마치 일상생활에 있을 수 있는 일로 여겨지도록 노력한다. 학대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며 현재는 그 일로부터 거리가 있는 듯 표현하여 학대사건을 축소한다. 이는 학대자에 대한 두려움을 감추고 본인도 스스로 나를 위해 좋은 일이라고 애써 경험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로써 학대자인 부모의 행위를 정당하고 올바른 것으로 이해하려 한다.

그냥 때리기만 했는데---(응, 어떻게 때리셨어?) **몽둥이로 다리 때렸는데**(응, 다리 때렸어?) **발바닥**(응, 발바닥 때렸다고?) **지금은 안 때리고 그냥 나가라고 해**(참여자 2)

근데 심하게 잘 안 맞아~(참여자 4)

속상하지 않을 때는 어찌다가 그래요. 많이 안 그래요. 어찌다가~(참여자 1)

싸대기 치기도 하구, 때리기도 하고...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참여자 5)

그냥 손 들고 벌 서라고(손들고 벌서라고 그랬어?) **엄마 아파 가지구~ 제가 잘못해 가지고, 커서요 버릇 생기지 말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버릇 고쳐 주려고요**(참여자 3)

제가 잘 되라고 그런 거 같아요. 바르게 살라고 잘못을 잡아줄려고 그러신 거예요(참여자 5)

어쩔 때는요, 말로 타이루고(참여자 6)

(2) 나의 잘못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학대는 무조건 자신이 잘못해서, 혹은 자신이 원래 나쁜 아이여서 일어나는 것이다. 한번도 그 이외의 것은 생각해 보지 않는다. 물론 내심으로는 석연치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나의 잘못이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모든 학대는 내 탓이며 나는 원래 나쁜 아이여서 맞는다고 받아들인다. 따라서 잘못이 아동의 성품이나 기질처럼 내면화되어 있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했지** (응, 니가 어떻게 했는데?)
잘못했으니까 (참여자 2)

음.....거의 나 때문이 거 같아요. 내가 잘못해서(참여자 4)

내가 잘못했을 때요. 잘못했을 때 하고요, 아파 말 안 듣고 그랬을 때요 (참여자 1)
 (왜 이렇게 엄마가 때린 것 같아요?) **말을 안 들어서요**(참여자 6)

제가 잘못해 가지고 커서요 버릇 생기지 말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버릇 고쳐 주려고요 (참여자 3)

2) 예측 불가능

아동들은 대체로 학대가 언제 어느 상황에서 일어나는 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다. 막연하게 잘못하거나, 말을 안 들었을 때라고는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맞는지 지각하지 못한다. 사실 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이나 상황에 대한 지각이 없기 때문에 학대를 더 불러일으킨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1) 잘못된 내용을 잘 모름

본인이 잘못했다고 인정해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 때로는 자신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생각도 함께 들어 있지만 좀더 명확하게 추적하면 곧바로 이를 철회하는 등 잘못된 내용에 대하여 명확한 이해를 하지 못한다.

(주로 니가 무슨 잘못을 했을 때 아빠가 혼내고 그러지?) **별로 안 했는데 속상하게 해** (아빠가 왜 너를 속상하게 한다고 생각해?)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참여자 2)

(왜 엄마 아빠는 --를 가만 두지 않을까?) **어~ 모르겠어요** (어. 왜 --를 아빠가 와서 엄마처럼

가만두지 않고 괴롭힐까?) **어~ 속상해서요**(참여자 8)

(그럼 아빠가 때릴 때 왜 아빠가 --를 때린다고 생각해?) **음 ~ 네.** (무슨 이유가 있어서 아빠가 때린다고 생각해?) **모르겠어요**(참여자 8)

아동들이 잘못된 이유를 잘 모른다고 하는 데에는 인지적인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일 수도 있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질문을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모른다고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다른 연구에서도 아동들이 평상시 슬프고 낙심하며 모욕을 느껴 실제로는 아무 잘못도 없으면서 언제나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곽영숙·홍강의, 1992). 잘못의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막연히 자신의 잘못이라고 보는 것이 학대받는 아동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2) 학대를 유발하는 상황

아동들이 이해하는 학대를 유발하는 상황은 특정한 어느 상황이 아니라 보편화된 상황이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어느 때 아빠의 기분이 어때서 때린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어렵듯이 이해할 뿐이다. 그러므로 학대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이나 시기를 놓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부모의 상태를 관찰하거나 기분을 파악하여 조심하거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맞게 될 수도 있다. 상황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내리지 못하는 점이 역력하다.

제가 하기 싫은 심부름인데 해야 되고, 또 안 하면 아빠한테 혼나고 왜 그렇게 되는지...(참여자 5)

(그러면 아빠 기분이 어떨 때 그런 말을 막 하시는 것 같애?) **모르겠어.**(모르겠어? ...아빠가 너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화내시고 나가라고 그러니?) **아무거나** (아무거나 다? 응, 그럼 가장 최근에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런 말 했었어?) **아무거난데** (참여자 2)

나쁜 짓 하는 거 (나쁜 짓? 무슨 나쁜 짓 하지?) **괴롭히는 거** (누구를) **다요**(참여자 10)

아빠가요? 내가 잘못된 적은 있었지만, 잘못할 때는 아빠가 때리거든요. 아빠가 때려서요, 슬 먹으면요. 아빠가 그때 일 생각해서 그때 왜 잘못했냐고, 그때 일 갖고 때려요(참여자 1)

노는 것 때문에 맞지는 않는데요. 너무 멀리 가서 놀아가지구요. (너무 멀리 가서 놀아서?) **학교 좀 있는 곳에 가서 놀아 가지고요**(참여자 8)

(3) 부모의 부적절한 요구

학대 아동들은 일반 아동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그 나이에 저지를 수 있는 일로 인해 맞는 경우도 있다. 이는 부모의 양육기술이 부족하여 아동의 나이에 적절하지 않은 기대나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빠가 회사 갔을 때는 안 그러는데, 갖다 오면 아빠가 시킨 거 안 해 놓은 면~ (아아~ 아빠 시킨 거 안 해 놓으면? 아빠가 뭘 시키는데) **8시 되면 설거지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하고** (참여자 2)

(음, 최근에 맞은 것 얘기 좀 해줄래?) (침묵) (여기--가 멍들었잖아? 얼굴에, 왜 맞은 거야?) **공부 안 해 가지구요. 그래가지고 혼났어요.** (어떻게 때리셨는데?) **주먹으로, 여기도 때리구요**(어 허벅지) **또 다리도 때리구요, 또 손바닥도** (참여자 9)

우리가요 늦게까지 안 자고 있어 가지구요. 맞아 가지구요. 앞으로 일찍 자야지 착한 어린이들이구요. 일찍 일어나야지 빨리 학교 갈 수 있다구요 (참여자 3)

엄마 아플 때 설거지 하는 거 (그렇게 하면 뿌듯하니?) **네.**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나면 엄마가 어때니?) **엄마가 깜짝 놀라요. 네 그때 7살 때** (아~ 7살 때?) (참여자 3)

밖에 나가서 놀지 말라고 하는데요. 밖에서 나가서 놀구요. 또 공부 글씨도 이상하게 쓰구요... (음, 맞을만한 일을 했다는 게 글씨 예쁘게 안 쓰고 공부 안하고 또?) **비깅에 나가서.** (참여자 9)

우리는 가난해 가지구요 (가난해서. 음, 그래서 --를 그냥 가만 놔두지 않고 공부하라고 아빠가 자꾸 자꾸 얘기하고 귀찮게 하는 게 가난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네. 상장을 많이 받아 가지구요. 돈도 많이 벌으라고.**(참여자 9)

나쁜 거요. 엄마 말 안 듣고 막 먹는 거요(먹는 거? 엄마가 못 먹게 해?) **아니요. 막 먹을 때요. 허겁지겁 먹어요**(참여자 6)

방 치울 때요. 손으로 마루 훑칠 때요. 막 너무 어지럽고 그래서요. 치우기 힘들어서 울고 그랬어요. 그리고 안 하면 맞으니깐요. 다 했어요.그래서요 깨끗해서 좋았어요.(참여자 10)

3) 혼란스러운 감정

학대받은 아동의 내면세계는 매우 무질서하고 감정적 혼란을 겪는다. 학대와 같은 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들은 아동에게 큰 정서적 혼란을 일으킨다. 아동들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서 이를 적절히 처리하기 어렵다. 이런 혼돈 상태는 후에 공격적인 방식으로 감정을 표출하려는 성향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신의 감정에 잘 반응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 공감하거나 이해하는 것 역시 어렵다.

(1) 부정적 감정들

학대에 관해 자신의 감정을 밝히는 것을 아동들은 매우 어려워한다. 우선 학대 사건 자체를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에 따른 복잡한 심정을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사건에 대한 진술보다 그 사건으로 인해 느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더 어렵다. 질문을 받은 경우에 회피와 부정을 많이 했고, 주제를 바꾸려 한다. 그러나 몇몇 아동은 어느 정도 학대 문제에 대해 솔직한 감정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 중에 크게 두드러지는 것이 분하고 억울한 감정과 죽고싶은 심정 등의 부정적 감정이다.

그때요? 누구 없을 때는 좀 분했어요.(참여자 1)

억울하고 짜증나요.(참여자 3)

나가고 싶지. 죽고 싶어.(참여자 2)

욕했어요. (속으로?)**네.** (...그때 때 맞고 혼나면 어떤 생각이 들었어?) **욕했어요.**(무슨 욕을 어떻게 했어?) **개새끼 (음, 또?) 몰라요. 욕한 것밖에 없어요.**(참여자 10)

억울하다 (참여자 9)

(2) 감정 처리의 어려움

일반적으로 아동들이 심한 감정의 기복에 휩싸이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른다. 대체로 그냥 참거나 무감각하게 내버려 둔다. 부모나 주변인의 도움 없이 감정을 혼자서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한다.

기분이 나쁘고 울 때도 있어요. 그리고 누나들이 혼날 때도 이불을 뒤집어쓰고 울었어요.(참여자 5)

제 기분은요~ 짜증났어요(이렇게 속상하고 짜증나는 일이 있어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어. 그러면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해 줄 것 같애? 너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할 것 같아요** (참여자 3)

(아빠가 --때릴 때 맞으면서 어떤 생각나니?)**우선..몰라요 아무생각 안나요** (그냥, 아프다고만 생각해?) **그 생각은 아플 때 아빠가 맨 날 혼날 때마다요** 그런 생각 맨날 해요.(참여자 9)

(어떤 느낌이 드니?) **아무 느낌이 안 들어요** (참여자 9)

(3) 상대방의 감정을 모름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도 잘 이해가 안 된다. 학대자의 감정은 속상하고 화난 것 그 이상이 아니다. 상대방의 감정의 기복에 대해 무감각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사실 부모의 감정을 건드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아빠가 내가 잘못하니까 속상해 하시는 거 같구, 담배만 피세요 (참여자 5)

(응, 그때 아빠 기분은 어땠어?) **아빠요? 모르겠어요**(참여자 3)

(응, 그러면 아빠 기분이 어떨 때 그런 말을 막 하시는 것 같애?) **모르겠어**.(참여자 2)

(엄마 기분이 어떨 때 너를 힘들게 하는 거 같아?) **음..있잖아요** **엄마가요** (어) **음..엄마가 뭐 사줄려고 하는 거 같은데요**(대답회피, 주제변경)(참여자 4)

(응, 아빠가 막 혼냈을 때, 아빠 기분이 보통 어땠었던 것 같애?) **기분이요? 응, 속상했던 것 같아요**(참여자 1)

(그것으로 때리는구나? 엄마가 --이 때렸을 때 엄마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때렸을까?)**음~ 속상해 하면서** (참여자 7).

4) 세계로부터의 도피

학대 상황은 아동이 피할 수 없는 압도적인 상황을 연출한다. 그래서 아동은 나름대로 이것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도피처를 찾아내려고 한다. 대표적으로 소망적 사고나 자기중심적인 이분법적 사고를 통해 학대를 비현실화한다. 학대라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아주 좋은 부모라고 믿고 싶은 순간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 그렇다고 말할 때도 있다. 결국 아동은 이런 사고를 통해 자신을 괴롭히는 현실을 왜곡하고 도피하는 방식을 택한다. 타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광영숙·홍

강의(1992)는 아동이 원시적 방어기전으로 부정, 투사, 합입, 분리 등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위협적인 내적, 외적 부모상을 다루므로 사랑하는 부모상과 적개심을 느끼는 부모상을 통합시킬 수가 없다고 보았다. 다른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 부모의 잘못을 인정치 못하고 억압하게 된다. 또한 내재화된 파괴적인 부모상을 인식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살인적 분노로부터 부모를 보호하기 위해 나쁜 부모상을 부정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고 자신은 좋은 부모를 가졌다는 환상 속에 머물게 된다고 한다. 아동의 소망적인 생각이 현실로 착각되는 경우는 심한 학대를 받은 아동들에게 많이 나타났다.

(1) 소망적 사고(wishful thinking)

몇몇 아동의 경우에는 학대 사실 자체를 인정하려하지 않는다. 학대에 대하여 말하기 매우 어려워하는 아동일수록 실제 상황과 다르게 기술하였는데 부모에 대한 자신의 소망(wishful thinking)을 마치 현실인 것처럼 말한다. 다음의 아동들은 부나 친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

(속상했던 적 있니? 혹시, 아빠 엄마에 대해서)

그런 적 없는데요 (한 번도 없었어?) **네. 잘못했을 때는 그냥 손 들고 벌서고 그랬어요** (응, 손 들고 벌서고 그랬어? 아빠한테나 엄마한테 맞은 적 없었니?) **네. (한번도) 네.**(참여자 3)

아빠가 술도 이제 안 먹고 그래서 술 안 먹으면 아빠가 밥도 챙겨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니까 좋아 가지고 그런 말 안 해요(참여자 1)

어 저는요 잘 맞아본 적이 없어요 (참여자4)

친구가 많은 편이에요(많다는 건 대충 몇 명 정도를 얘기하는 거야?) **7명이요**(그러면 그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야?)**성격은요, 이름은 안 말해요. 성격은 아주 더티하고요**(더티하다구?)**네. 밝고요 공부도 잘하는 편이에요** (참여자 3)(실제로는 왕따 당하는 아동임)

음...제가 딸이 있으면요...차라리 동생이라 할께요 머리도 이쁘게 해 주구요 귀여워 해주고, 음..그리고 또 목욕도요, 음.....뽀 맛있는 것도 사주구 하는거요 (참여자4)

(2) 모호한 사고

아동들이 보기에 부모는 잘못할 수 없으므로 억울하게 맞았다 해도 저항할 수 없다. 그럴 때 부모가 잘못된 것 같으나 그 생각에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다시 잘못을 자신의 탓으로 결론짓는다. 부모를 비난하는 것은 부모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학대상황에서 비난받아야 할 대상은 자신 밖에 없다.

(--가 미워서?) **네** (그럼 그건 누구 때문에 속상했다고 생각해?) **몰라요** **음.....제가 잘못했을 때**

(참여자 4)

(그런데 누군가--를 때렸을 때 그게 누구의 잘못이야?) **그 때린 사람.(그게 아빠면?) **아빠도 잘못 하죠**** (아빠도 잘못하기도 해?) **네.**(그럼, 그렇게 --가 맞는 일이 어떻다고 생각해?) **당연하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참여자 11)

(나 때문에 아빠가 그렇게 화가 나서 나를 그렇게 때렸구나 하고 생각한데?) **나는요, 싫어요.** (뭐가 싫어? 너도 너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하고 아니요는 뭐야) **나 싫어서요.**(참여자 10)

5) 자존감의 박탈

학대받은 아동은 부모의 구타를 자신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자신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자아상을 만들게 된다. 학대는 부모가 격려해 주어야 하는 아동의 자아발달을 위축시키고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심어준다. 학대자를 기준으로 자신을 볼 때 아동은 자신이 무가치하며 사랑스럽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하게 된다.

(1) 부정적 자아상

자아상은 아동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특성에 대해 가치를 판단하는 것으로 초등학교시기에 안정적으로 형성된다(서봉연, 1994). 학대받은 아동들은 매우 왜곡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데 주로 이런 자아상은 부모로부터 받은 모욕과 거부적 태도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는 어떤 아이같애?)**저요?(응) 조금 나쁜 아이 같애요.** (나쁜 아이 같애?) **왜냐면 동생들 괴롭힐 때도 있고, 잘못하게 할 때도 있고**(참여자 1)

(--는 정말 내가 사랑스러워, 이런 생각이 어떨 때 들어요?) **든 적 없어요** (든 적이 없어요? 조금 한번 생각해 보자.) **음. 저는요 잘 모르겠어요 한번도 생각해 본적 없어요**

(그러면 --가 생각할 때는 --는 어떤 점이 좋은 거 같아?) **어 모르겠어요** (그럼 사람들이 혹시 다른 사람들이 --는 이런 점이 참 좋아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었어? 너한테 이야기 해준 적 있어?) **모르겠어요** (음...없어?) **없을 꺼 같아요**(참여자 4)

(--를 어떤 친구라고 생각할까?) **모르겠어요** **그건요**(...그럼 --는 친구들이 --를 어떤 친구라고 얘기해 줬음 좋겠어?) **음..... 저는요 친구들이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되는데요** (음. 아무렇게나 생

각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네.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고..(참여자 4)

(--가 생각했을 때 나 이럴 때 참 멋진 아이인 것 같애 그렇게 생각한 적 있잖아? 어떤 점이 멋진 것 같애?) 어~ 모르겠어요 (참여자 8)

(--이 제일 좋은 점? 칭찬하는 시간이야) 좋은 점 없어요 (--이 좋은 점 없어?) 네.(생각해 봐봐?) 있어요. 아까 복지관에 왔을 때요. 모자 쓰고 있었는데요. 모자 벗으라고 했는데 모자 안 벗었는데요. 그래서요. 박 선생님이 모자 안 벗으면 복지관에 못 오게 한다고 하니까요. 모자 벗었어요. (그것이 너의 좋은 점이야? 잘 한 행동이라고?) 어~ 몰라요. 몰라요.(참여자 10)

(2) 학대자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함

아동들의 자존감은 주로 부모나 교사, 동료 등 중요한 타인의 자신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발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대받은 아동들은 누구보다도 학대하는 부모를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그만큼 학대하는 부모의 존재가 아동에게 절대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신의 가치를 오직 학대자의 눈을 통해 평가하는 것이 역력히 나타난다. 예를 들어 자랑거리는 주로 학대자에게 얼마나 순종했는가, 아니면 얼마나 그를 만족시켰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그의 존재 가치는 학대자를 기준으로 매겨진다. 이는 마치 학대자의 포로로 살아가는 것과 같다.

(너는 어떨 때 너가 자랑스럽게 생각되니?) 그런 적 한번도 없어요(그럼, 어떨 때 네가 가장 싫어지니?) 아따 말을 안 듣고 잘못했을 때 그런 내가 싫어요(참여자 5)

(너는 어떤 아이인거 같애?) 착한 아이일 때도 있고요 나쁜 아이일 때도 있다고 생각해요(아, 착한 아이일 때도 있고 나쁜 아이일 때도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어떨 때 착한 아이인 거 같애?) 어떨 때요? (응) 엄마 도와주고 엄마 다른 일할 때 몰래요 설거지 해 놓는 거요.

(아, 그게 착한 아인 거 같애?) 네 (그러면 뭐가 나쁜 아인거 같애?)네, 엄마 말 잘 안 듣고요, 짜증내는 거요(참여자 3)

제가요 엄마를 못 도와줄 때(응, 엄마 못 도와줄 때). 제가요 나쁜 아이가 된 것 같아요 (나쁜 아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제가요 왜 태어났나 그런 생각도 해요(참여자 3)

(바뀌고 싶은 것이 있어?)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아이루요(부모님 말씀 잘 듣는 아이로 딱 바뀌고 싶어? 그런 아이로. 그렇구나. --가 한 것 중에 내가 생각하기에도 내가 참 자랑스러워. 그런 점 있어? 어떤 거? --행동에 대해서. 내가 참 잘한 것 같애?) ..밖에다 쓰레기 버리지 않는 거.(참여자 7)

(우리 가족에게서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사람이야 하고 생각하니?)**아니요** (아니야? 그냥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그래?) **네**.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쩔 때는요 공부해서 상장 받은 날도 있고요, 어쩔 때는 놀구 그런 날도 있어 가지구요.**(참여자 9)

(--가 생각할 때 너의 좋은 점은 뭐야?)**없어요** (하나도 없는 것 같애? 그러면 나쁜 점은?) **나쁜 거요? 엄마 말 안 듣고 막 먹는 거.**(참여자 6)

(--가 가장 자랑스러울 때는 언제야?) **아빠한테 잘 보이는 거요** (참여자 10)

6) 친구와의 갈등

보편적으로 학대받은 아동들은 친구들과의 갈등이 심하거나 친구를 사귀지 못한다. 친구를 신뢰하지 않으며, 친구들에게 호의를 얻지 못한다. 몇몇 접촉한 아동들의 교사들은 아동들이 친구와 잘 다투거나 산만하고 호전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다른 연구에서도 학대받은 아동들의 친구와의 상호작용에서 부정적이며 덜 순행적(proactive)인 점이 관찰되었다(Howe & Parke, 2001).

(1) 친구들과의 차이

아동들은 학대받은 것과 받지 않은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편이다. 즉 ‘다른 친구들은 나처럼 얻어맞지 않는다’, 또는 ‘다른 부모는 우리 부모처럼 때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친구들에게 자신의 나쁜 사정을 알리고 싶지 않고 학대받은 사실을 감추고 싶어한다.

(--한테 네가 속상할 때 이야기해 본 적 있니?)**없어요**. 그리고 --는 잘못을 안해서 한번도 부모님한테 혼나본 적이 없는데, 저는 혼난 적이 많으니까 이야기하지 않아요.(참여자 5)

아아~놀릴까봐. 그래서 그래요. (뭐라고 놀리는데?) **우리 엄마하고 아빠 없다고 하고 이혼했다고 하고 놀려요** (아아~만약에 친구들한테 그런 얘길 하면 친구들이 어떻게 해 줄 것 같애?) **당연히 놀리죠**. (참여자 1)

개네들은 자기 부모한테 케길 수도 있고..나는 그렇게 못하죠(참여자 1)

개네들은요, 막 자꾸 뭐라고 그래요. **나한테** (뭐라뭐라 그래?) **네**.(뭐라고 그러는 게 뭘데?) **저한테요 나쁜 사람이라고 막 그래요 그 애들끼리 모여서**(참여자 3)

(2) 친구와의 불화

대부분의 학대 아동은 친구로부터 고립을 경험하거나 친구관계가 원만하지 않다. 가끔 노는 친구가 있어도 속사정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친구라고 보지 않는다. 같이 노는 친구들이 있어도 자기와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지 못한다. 친구들이 비밀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감이 강하고 친구가 이해하거나 돕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학대받은 아동들은 친구와 사이가 좋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는 폭력부모와 동일화하여 과도하게 공격행동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담임선생이나 기관 위커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아동들이 매우 충동적이며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옷차림에 신경을 쓰지 않는 등 타인에게 호감이 가지 않는 면을 가지고 있다.

같이 놀다가 싸운 적도 있구. 그러니깐요. 싸운 친구도 있고. 또 같이 놀다가 비와 가지고 아파한테 혼난 적도 있구 친구가요. 나를 거의 싫어하길 싫어 하구요. 그럴 것 같아요.(참여자 9)

매일, 친구들 하고 싸웠어요.(참여자 6)

개네들은요. 막 자꾸 뭐라고 그래요. 나한테 (뭐라 뭐라 그래?) 네. (뭐라 뭐라 그러는 게 뭔데?) 저한테요. 나쁜 사람이라고 막 그래요....(참여자 3)

(괴로운 거는?) 있었어요. 친구들이랑요. (친구들이 놀렸어? 왜 놀렸어? 뭐라고 놀렸는데?) 시검둥이라고요.(참여자 7)

저한테는요. ~ 저기요. 뭐라뭐라 얘기하고요, 사람이요 기분 나쁘게 하는 거요. (참여자 3)

(친구들이랑 자주 싸웠어?) 네. 매일 (...시골친구들이 좋은 것 같아? 여기 친구들이 좋은 것 같아?) 시골친구들이. 여자애들은 없는데 남자애들은 내가 잘해 주니깐요. 개들도 나한테 잘해주고 내가 울면 와서 같이 놀아주고 또 다른 친구들하고 노는데 방해해도 내가 가끔씩 방해하는데 그래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 때리지 않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음. 그랬구나. 여기 친구들은 그런 것 없어?) 그런 것 없구요. 여자애들이 가끔씩 타일러주고 놀 때는 남자애들이랑 막 싸우면서 놀고 (참여자 6)

3) 친구로부터의 고립

어떤 경우에는 친구들과 불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친구들로부터 고립되어 왕따 경험을 하기도 한다. 특히 조용한 성격이지만 공격적인 특성을 지닌 아동들, 도벽이나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는 아동에게

왕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즘에 걱정거리 있으면 뭐야? 가장 힘든 거) **학교생활** (학교생활?) **네.** (학교에서 어떤 게 제일 힘들어) **애들만 놀고 나 혼자 있는 거.** (참여자 2)

(--는 가장 친한 친구 있니?) **네? 가장 친한 친구요? 있었는데요. 어쩔 수 없게 그 친구가 저랑 놀지 않아요.** (참여자 11)

(--가 좋아했던 친구는 있어? 반에서) **아니요** (없어?) **네...**(그 친구랑 친했어?) **아니요**(안 친했어?) **아니요** (그 친구들 보고 싶어? 설은 초등학교 2학년 3반 친구들?) **몰라요**(참여자 8)

(학교에서 가장 안 즐거웠을 때는 뭐야?) **재미없었어요** (뭐가 재미없었어?) **애들이요. 놀 때요. 저하고 안 놀아주었을 때요**(참여자 8)

(친구들이 --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애?) **아니요**(관심이 없는 것 같애?) **네. 한명이..(한명?) 한 명이나 두 명이 있는 것 같애요** (참여자 9)

(음. 그때가 싫었어? 왜 그때 --랑 안 놀아줬을까?) **몰라요. 제가 그때 안 시켜달라고 그랬어요** (아, 니가 그냥 나 시켜 주지마. 그랬던 거야?) **아니요. 시켜달라고 안했다고요**(시켜달라고 안했다고?) **말도 안 물어봤어요. 개네가.**(참여자 8)

7) 혼자서 삭임

학대는 부모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반항하거나 도망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 행위이다. 특히 도망했을 때 아동들은 더 맞는다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 도망할 수 없는 포로의 심정으로 차라리 그냥 맞는 게 더 낫다는 사실을 터득하고 있다. 이런 포기는 일종의 살아남기 위한 대처 방식이며 생존 전략이다.

(1) 반항하지 않음

학대받은 아동들은 맞으면서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다.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부모의 화가 풀릴 때까지 맞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맞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의 질문에 '그냥 아프다' 외의 다른 생각은 없다고 대답한다.

(--는 맞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데?) **빨리 끝나고 싶다** (참여자 10)

음...그러면은 그냥 맞구요 아무생각이 없어요 (참여자 3)

(아빠한테 맞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어?) 아프다고 (참여자 8)

(그럼 --는 맞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 맞으면서 ~아프다는 생각.(그냥 아프다는 생각만 했어?) 네.(참여자 7)

(2) 침묵하기

학대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대부분 아동들이 택하는 대처 양식이다. 학대를 드러내놓고 말하거나 누구에게 털어놓기보다 가족비밀로 지킨다. 침묵하거나 대답을 회피함으로써 불편한 상황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 면접 자료에서도 대답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반응이 매우 많았고 이런 아동일수록 학대의 정도나 심리적 상처가 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속상한 일이 있고 짜증나는 일이 있어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어. 그러면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 해줄 것 같애? 너한테) 아무 얘기 안 할 것 같아요.(참여자 3)

(어 --가 그런 속상한 거 말고, 친구들 중에서 비밀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나 혹시 사람이 있어요?) 음....없는 거 같아요 저는요 저는요 (어) 어찌다가는 말하구요 어찌다가는 말 안 해요.(참여자 4)

(--에 대해 설명해 보라고 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요 어. 음...남에게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참여자 4)

(아빠가 -- 이렇게 명든 것보고 뭐라고 하셔?)(얘기한 적 있어? 아빠한테?)(엄마 말 잘 듣지. 음) 잘 생각 안나요.(참여자 6)

슬렸을 때 아무 말도 안 했어요(참여자 1)

8) 가족 지향적인 삶

학대받은 아동들은 가족지향적인 삶을 바라고 있다. 개인적인 성취보다 가족이 우선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더 바란다. 아동의 걱정거리를 물어보면 가족에 대한 걱정거리가 무엇보다 앞선다. 현재 가족에서 고통스럽고 힘든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 고통을 벗어나는 길로 가족이 잘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 같다.

(1) 가정의 불화

아동들은 자신들의 현재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렇게 된 요인으로는 주로 술, 부모의 관계갈등, 경제적 곤란과 부모의 실직 등을 꼽을 수 있다. 자신의 가족이 지금보다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지니고 있으나 때로는 오히려 수치스럽게 느끼기도 한다.

응, 엄마하고 아빠하고 하도 싸워서 이혼해 가지고요. 엄마가요 이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빠가요. 엄마 때문에 속상해서 왜 결혼을 해 가지고 그러냐~ 엄마 생각해 가지고 때려요. 막 동
네 사람들한테 아빠가 엄마 얘기 들어서 아빠가 속상해서 그냥 나 때리는 거 같아요. 화풀이~
(참여자 1)

엄마, 아니면 아빠 친구들이랑 싸웠을 때.(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았을 때~...엄마는요 아줌마
들한테서 나쁜 소식 들어와요 ... (참여자 1)

(응, 그런데 사이가 나빠지면서). 그런데 아빠가 좀 이상해요. 막 우리 엄마가 일해서 늦게 들어
온 건데요, 아빠는요. 엄마 친구들이랑 화투치고 그랬다고 그러고 막 때려요.(참여자 1)

(우리 가족은 이런 점이 참 좋아요 라고 생각하는 것?) ...좋은 점이 없어요 (좋은 점이 없어요?)
네. 맨날 맨날 아빠가요 술 드시고 그래가지고. (참여자 9)

(아빠가 술 안 드시면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하고 좋아질 것 같애?) 네. 그러구요. 일하러 나가시구
요. (참여자 9)

--는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싫어요. 아빠도 엄마도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싫어요. (아
빠는 어떨 때가 좋아?) 잘 모르겠어. (참여자 6)

아빠는요. 맨날 침대에 누워서요. 엄마를 도와줘야 하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TV만 보고 있어요.
누워가지고 (참여자 7)

(2) 가족에 대한 걱정

학대받은 아동들은 가족에 대한 생각을 같은 나이 또래의 아동보다 더 많이 한다. 걱정거리는 주로
아빠의 건강, 술문제, 가난 등이다. 학대자라 할지라도 부모이기 때문에 아동은 그를 걱정하고 그의
상태나 가족의 상태가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혹시--가 걱정되거나 고민되는 거 있니?) 예, 아빠가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그러다가 죽을까봐

(아빠가 걱정돼?) 이제 술 많이 먹으면 죽는다고(그런 얘기는 누구한테 들었어?) **아빠한테. 아빠가 때 때대 가지고요, 아빠, 거기 왜 떼냈어? 그러니까 거기에 담석 들어서 떼냈다고, 그래서 아빠 이제 술 먹을꺼야? 그러니까 안 먹어,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술 먹으면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참여자 1)

엄마가 아파서. 엄마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내가 커서 간호원되서 엄마 아픈 것도 고쳐주고 싶어요. (참여자 3)

(고민거리 있어?) **아니요 (없어?) 아니 있어요 엄마가요, 음.....엄마랑 많이 놀러갔으면 좋겠어요 (아~엄마가 만약 놀러가 주고 그러면 뭐가 좋을 거 같아?) 음좋을 거라는 것은 없구요 음....추억에 많이 남을 거 같아요. 사진도 있고(참여자 4)**

음. 아빠가 술 드시는 거요(그런 점이 가장 싫어?) 네.(그러면 뭘 바꿨으면 좋겠어?) 아빠 술 드시는 거요 (아 술 안 드셨으면 좋겠어? 아빠가 술 안 드시면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하고 좋아질 것 같애?) 네. 그러구요. 일하러 나가시구요. (참여자 9)

(그러면 --한테 가장 큰 고민은 뭐야?) **엄마문제.** (참여자 10)

(3) 가족에 대한 희망

아동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가족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앞으로 되고 싶은 것이나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빨리 결혼하고 싶다든지 돈을 벌어서 부모를 기쁘게 해주고 싶다는 소망을 밝힌다. 개인적인 포부보다는 주로 가족의 행복을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점이 독특한 점이다.

아빠가 없을 때는 속상하고 슬퍼서 옛날 얘기해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 때 그 얘기~ (조금 덜 힘들었을 때 얘기?) 엄마랑 아빠 행복했을 때, 그때 그런 얘기.(참여자 1)

우리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한 집에 살고, 동생들도 행복하게 살아가고.더 오래오래 잘 살라고 (참여자 1)

엄마랑 이야기도 하고 싶고, 엄마랑 쇼핑도 하고 싶고...(참여자 4)

내가 어른으로 변했으면 좋겠어요.(왜 ?)어른이 되면 빨리 결혼할 수 있으니깐 빨리(어른이 되면 빨리 결혼할 수 있으니깐?) 네.(그것 말고 다른 것도 하고 싶은 거 있어?) 네. 일.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돈 벌어다 주고 싶어요(참여자 8)

6. 연구결과의 요약

아동의 학대경험에 관해 현상학적 반성을 통해 아동학대가 아동에게 어떻게 체험되었는지를 밝혀 보았다. 학대를 다른 체벌과 구분할 수 있게 하는 요소들을 밝혀서 궁극적으로는 실천의 함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경험한 아동 학대의 의미는 자신의 과실로 인해 빚어진 불행이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사건이다. 그러한 일이 왜 발생했는지는 알기 어려우며 혼란스러운 감정에 빠진다. 때로는 상상을 통해 현실 세계로부터 도피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감정과 생각이 서로 뒤엉키기도 하다. 학대받은 사실을 털어놓을 만큼 믿을만한 친구는 없고 오히려 친구들은 자신을 비난하거나 왕따시킨다. 학대로 인해 생기는 어려움은 혼자서 삭이며 언젠가는 가족의 상황이 지금보다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학대란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경험된 매우 왜곡되고 부정적인 상호작용으로 기본적으로 아동에 대한 부당한 대우이며 부적절한 발달 환경이다. 가정의 일차적 관계를 통해 인간은 아동은 기본적인 인생관과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학대는 이런 기본적 사고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동들은 자신들의 생명과 성장에 직접 관여하는 부모에서 받은 신체적, 정서적 상처로 인해 이 세계에서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 다시 입을 해를 두려워하며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게 된다.

학대받은 아동들이 학대하는 부모에 대해 느끼는 진정한 감정을 알아내기는 어렵다. 학대가 자신을 돌보는 부모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족이 아닌 외부인에게 부모를 비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학대사건을 축소하며 부모를 외부의 비난으로부터 보호하거나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노력이 뒤따르게 된다. 그러나 아동자신은 학대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고, 학대자의 감정이 무엇이며 학대를 피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아동들은 학대가 절대적으로 본인의 잘못으로 유발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탈출구가 없는 상황이며 무방비의 상태로 이 사건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들은 학대 상황을 거부할 수 없고, 반항할 수 없는 상황으로 체험한다.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내심으로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그것은 한 번 때리면 화가 다 풀릴 때까지 심하게 때리는 부모의 비이성적 행동이 다른 부모들과는 어쩐지 다르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학대와 훈계의 때는 아동들 안에서 구분이 가능하다. 따라서 다른 아이들의 부모와 자신의 부모가 다르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을 말하지는 않는다. 학대하는 부모들은 아동의 나이에 적절하지 않은 과제를 부과하거나 부적절한 기대를 가지고 아동들을 구타했다. 학대하는 부모는 양육기술이 부족하고 경제적 압박이나 가정의 파탄 등으로 디스트레스를 받는 부모들이다.

아동이 부모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고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부정적인 관계로 아동의 감정세계는 혼돈에 빠져 있다.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감정의 조절이나 처리가 매우 어렵다. 특히 화를 직접 내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누르거나 참았다가 밖에 나

와 터뜨리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이런 감정 조절의 어려움은 타인과의 관계에 큰 어려움과 갈등 상황을 빚어내어 아동으로 하여금 친구로부터 고립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빚어낸다.

학대자는 아동에게 막강한 힘을 가진 존재며 거의 절대적 존재다. 그는 아동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아동들은 학대라는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다. 어떤 때는 자기를 보호를 위해 현실을 도피하는 소망적 사고와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모호한 사고에 빠진다. 특히 신체적으로 닦힌 위협에 대해서는 혼자서 감당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분한 감정들을 혼자서 삭인다. 결코 도망할 수 없다는 체념을 가지고 침묵으로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고 묵묵히 참고 넘어가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아동 학대는 아동의 자유로움과 창조성을 파괴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해칠 뿐만 아니라 힘의 불균형 속에서 심한 억압과 디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한다. 이러한 불균형적인 힘의 관계를 아동들은 일찍이 습득하고 그 안에서 생존하는 법과 그것을 생활 세계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해 가게 된다. 그것이 자기 보호 본능을 키워가는 방식으로 극대화되어 평범한 아이들과는 차별되는 삶의 방식을 형성하게 된다. 부모의 억압과 거부 또는 모욕으로 인해 아동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자존감을 잃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행동과 말에 자신이 없고, 눈치를 본다. 때로는 약자나 친구들에게 공격적이 되고 화를 터뜨리는데 이것은 학대받으면서 속에 담아둔 분한 감정의 발로인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를 통해 가장 독특하게 발견한 점은 아동들이 가족 지향적인 삶을 동경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는 학대받은 아동들이 가족을 거부하거나 가족에 대한 희망을 버렸을 것으로 생각하나 의외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가족에 대해 애착을 느끼고 진심으로 걱정하며 가족이 잘 되기를 소망하였다. 그것은 학대하는 부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부모가 학대했다고 해서 무조건 미워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건강을 걱정하거나 가족의 상황이 나쁜 것을 걱정하면서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이점이 어느 면에서 학대받은 아동들의 세계와 일반 아동의 경험 세계를 구별해 주는 점이라고 본다. 학대받은 아동은 같은 나이 또래의 일반 아동보다 일찍 가족에 대한 개념이 생기는 것 같다. 그리고 자신을 독립된 개별적 존재로 보기보다는 가족의 일원으로 보는 의식이 더 강하다. 그런 만큼 아동의 걱정, 소망 등이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현재는 가족 안에서 자신이 미미한 존재이지만 앞으로는 가족의 행복을 성취하는데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고 싶어한다. 행복한 가정의 의미 또는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학대를 경험하지 못한 아동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가족에 대해 희망을 가지는 것은 가족이 파괴되거나 따뜻한 가정을 가져보지 못한데서 오는 자연적인 욕구일 수 있다. 또한 가족의 행복에 대한 소망은 자신들의 불안정한 실존적 생활 감각을 메워 주고 이를 바꾸어 줄 하나의 출구로 삼을 수 있다.

7. 결론 및 제언

아동학대의 경험을 아동의 입장에서 살펴보기 위하여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얻었다. 아동 학대의 의미는 힘의 불균형 구조에서 발생한 아동의 발달환경의 심각한 파손이다. 아동들은 이 세계 안에서의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탈출구가 없는 포로와 같은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자신의 방어를 체념하고 살아간다. 학대행위는 일반 훈육과는 완전히 구분되며 아동들도 이를 감지하고 있다. 학대 경험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아동들은 학대를 모두 자신의 탓으로 돌려 부모를 보호하고 정당화시켰다.

학대의 영향은 어린 시절의 자유로운 심성을 억압하고 창조성을 파괴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해친다. 뿐만 아니라 아동들은 일찍이 자신의 불안정한 실존을 깨닫고 그 안에서 생존하는 법과 그것을 생활 세계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한다. 이러한 모습은 외부인의 시각에서 보면 정서적 부적응과 사고의 혼돈, 부정적인 자기 정체성의 확립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아동 편에서 보면 이런 사고나 행동은 위협적인 세계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최선의 방편일 수 있다. 자기 방어를 포기하는 것도 도망가면 더 위험한 상황에 부딪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대처 방식이다. 학대 사실을 숨기는 것도 가족 비밀을 지켜 수치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마음과 폭로가 가져올 파장을 염려하기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는 아동 편에서 경험하고 바라보는 학대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몇 가지 상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요한 주제들을 찾아내었다. 먼저 학대 사건 자체와 관련되어서 아동은 그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려는 노력을 한다. 오히려 부모와 자녀의 역할이 뒤바뀐 것이다. Briere(1992)는 아동이 학대경험의 의미를 만드는 과정에서 온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고는 상처를 주는 부모가 나쁠 수 없으므로 상처받는 자신이 나쁘다는 것이다. 부모에 대해 싫은 감정을 지니거나 속상한 마음이 드는 자신이 학대받아 마땅한 아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상담에서는 이러한 학대 경험을 재해석하고 아동이 지닌 의미와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학대사실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허용의 분위기와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이 부모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다. 아동들이 학대에 관한 주제를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는 학대에 대한 사회적 시각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학대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 부당한 행동임을 강조하여 부모도 잘못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학대의 상황을 보편화시키고 잘못된 부모라도 아동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타 연구에서는 학대받은 아동들은 정서적 부적응을 경험한다고 보고한다(김혜영, 2000). 정서적 부적응은 전문가의 입장을 반영한 평가다. 아동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고 혼란스럽다. 맞으면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느끼지만 때린 부모를 탓할 수 없는 아동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난관에 빠진다.

건강한 아동의 발달 환경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따뜻함과 수용이다(Rohner, 1986). 학대받은

아동들은 이러한 발달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 감정의 경험이나 감정적 표현의 수준,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조절하는 능력은 일찍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정서적 상호 교류의 맥락에서 배우는 것이다 (Thompson, 1990). 학대라는 심히 왜곡된 부정적인 감정 교류는 아동이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능력을 상실하게 한다. 상담에서는 아동의 이런 정서적 표출 방식을 다루어 감정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학대사건은 일종의 외상과 같다. 아동에게 긍정적으로 정서적 교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학대 사건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허용하는 안전한 맥락이 조성되어야 한다. 학대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인 정서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 주고 이를 솔직히 표현하도록 격려하는 것은 아동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필수적이다.

아동이 부모로부터 배우는 감정적 상호작용 패턴은 이후에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상담에서는 서로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고 감정 언어를 연습시켜 감정의 긍정적인 표현 양식을 가르치고 이를 친구관계에 적용하도록 도와야 한다.

학대는 아동에게 매우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내면세계를 만들어준다. 그들의 행동이나 삶의 형태를 부적응적이며 정신병리적이라고 평가하기보다 그런 혼란 속에서 생존을 위해 아동이 선택한 생존 전략적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학대받은 아동들이 단순히 반사회적인 인물로 자라리라는 패배적 기대를 접고 이들이 그들 나름대로 발달시켜온 생존 전략을 보다 적응적으로, 또 그들의 강점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른 연구에서도 잦은 구타를 경험한 아동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황찬구, 1988). 본 연구에서도 아동의 자존감은 매우 낮았으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학대자를 기준으로 내리고 있다. 아동은 학대로 인해 자신의 과실이나 무가치성을 강조하는 경험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대신 자신의 장점을 간과하고 만다. 아동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상담자는 학대 경험에 대한 다른 의미를 찾도록 도우면서(예를 들면 부당한 처사, 불공정한 억압 등) 아동들이 학대자를 절대적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야 한다.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보기 위해 먼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을 찾도록 돕고, 학대자 이외에 아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는 중요한 타인들을 연결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면에서 담임교사, 친구, 친척, 자원봉사자 등 아동과 교류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 아동의 사회적 지지망을 형성해 주는 것도 유용하리라고 본다.

아동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함부로 학대자인 부모를 비난하거나 가족에 대한 평가절하의 발언은 금물이다. 아동의 가족에 대한 애정과 부모에 대한 양가감정을 존중해주는 것이 이들과의 관계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아동이 부모에 대해 지닌 사랑뿐만 아니라 학대한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가지는 사랑의 깊이 역시 타인이 이해할 수 없는 점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아동들의 언어발달과 표현력 증가를 위한 노력은 학대받은 아동들의 상담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억눌린 감정의 표현과 적절하게 자신의 욕구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은 상대방의 의도를 적으로 해석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지연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표현력을 증가시키고 감정처리의 방식에 힌트를 주는 나이에 적절한 독서, 미술, 음악 등의 매개체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리라고 본다. 학대받은 아동들을 위한 집단 모임도 적절한 또래관계 형성, 공감

능력의 향상, 대안적 행동방식을 습득하는데 매우 훌륭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아동들끼리 감정을 공유하고 서로 위로하며 지지할 수 있는 치료집단은 아동의 표현력을 향상시키기도 하고 사회 행동을 학습하는 좋은 계기를 제공하리라고 본다. 개별적으로는 다루어야 할 주제로는 부모에 대한 양가감정의 수용, 분노나 우울 등의 감정의 발산, 두려움과 공포 감정의 외현화, 왜곡된 정보 처리방식의 수정 등이 적절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권자영. 1991. “신체적 학대가 아동의 정서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요보호아동을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석사학위 논문.
- 김광일. 1988. “아동구타: 또 하나의 숨겨진 범죄”. 가정폭력. 서울: 탐구당. pp. 301-309.
- . 1989. 아동학대. 한국아동 학대예방협회. pp. 63-64.
- 김양희. 1998. “부부간 폭력과 가정생활 및 청소년”. 가정폭력과 청소년. 문화관광부.
- 김정준. 1986. “교사가 인식한 영세지역 새마을 유아원 어린이의 학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혜영. 1990. “아동학대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기출아동과 일반아동간의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근혜. 1999. “폭력가정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밴매넨, 맥스. 2000. 신경림 역. 체험연구. 현문사.
- 서봉연 외 7인. 1984. 심리학개론. 서울: 박영사.
- 신영화. 1986. “한국 아동학대의 사회, 인구 및 가족환경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안동현·홍강의. 1987 “한국에서의 아동학대 현황”,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정신건강연구. 6: 53-65.
- 양진향. 2001. “한국여성의 음식양생에 관한 체험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화정. 1998. “아동학대 평가 척도 개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선일보. 2003, 10, 11. 학대관련 기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피학대아동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홍강의. 2000A. “한국의 아동학대 실태조사 연구”. 한라아동학대예방협회 부천지회자료집 (7-25).
- . 2000B. “아동학대 실태 및 후유증 연구”.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학술세미나 자료집.
- 홍은주. 1997. “아동기 학대경험과 자아상으로 본 아동의 심리·사회발달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찬구. 1988. “아동구타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olger, K. E., and C. J. Patterson. 2001. “Developmental pathways from child maltreatment to peer rejection.” *Child Development* 72(2): 549.
- Bolger, K. E., C. J. Patterson, and J. B. Kupersmidt. 1998. “Peer relationships and self-esteem among children who have been maltreated.” *Child Development* 69(4): 1171-1198.
- Briere, John. 1992. “Methodological Issues in the Study of Sexual Abuse Effects.” *Journal of*

-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60. Iss. 2.
- Burke, A. E., D. A. Crenshaw, J. Green, M. Schollosser, and L. Strocchia-Rivera. 1989. "Influence of verbal ability on the expression of aggression in physically abused children."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dolescence of Psychiatry* 28: 215-218.
- Cerezo, M. A., and D. Frias. 1994. "Emotional and cognitive adjustment in abused children." *Child Abuse and Neglect* 18(11): 923-933.
- Coster, W. J., M. S. Gersten, M. Beeghly, and K. D. Holt. 1989. "Communicative functioning in maltreated toddl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5: 777-793.
- Dodge, K. A, J. E. Bates, and G. S. Pettit. 1990. "Mechanisms in the cycle of violence.(how child abuse affects later aggressive behavior)." *Science* 250(4988): 1678-1684.
- Flisher, A. J. et al. 1997.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of physically abused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6(1): 123-132.
- Fox, L., S. H. Long, and A. Anglois. 1988. "Patterns of language comprehension deficit in abused and neglected children."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 53: 239-244.
- Gamefski N., R. F. W. Diekstra, , P. De Heus. 1992. "Population-based survey of the characteristics of high school students with and without a history of suicidal behavior." *Acta Psychiatrist in Scandinavia* 86: 189-196.
- Giorgi, A. (Ed.).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Pittsburgh, PA: Duquesne University Press.
- Green, A. 1985. "Child abuse and neglect." *The Clinica: Guide to Child Psychiatry*. Shaffer, D., A. A. Ehrharot, L. L. Greenhil. (Eds.). NY: The Free Press.
- Grus, C. L. 2003. "Child abuse: correlations with hostile attributions." *Journal of Developmental & Behavioral Pediatrics* 24(4): 296-298.
- Haskett, M. E., and J. A. Kistner. 1991. "Social interactions and peer perceptions of young physically abused children." *Child Development* 62(5): 979-991.
- Howe, T. R., and R. D. Parke. 2001. "Friendship quality and sociometric status: between-group differences and links to loneliness in severely abused and nonabused children." *Child Abuse and Neglect* 25(5): 585-590.
- Kaplan S. J., D. Pelcovitz, S. Salzinger, F. S. Mandel, and M. Weiner.. 1997. "Adolescent physical abuse and suicide attempts." *Journal of Americal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6: 799-808.
- Kilpatrick, K. L, and L. M. Williams. 1998. "Potential mediator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child witnesses to domestic violence." *Child Abuse & Neglect* 4: 319-321.
- Kolko, D. J., et al. 1988. "Bahavioral emotional indicators of sexual abuse in child psychiatric inpatients: A controlled comparison with physical abuse." *Child Abuse & Neglect* 12: 529-541.
- Lewis D. O. 1992. "From abuse to violence: psychphysiological consequences of maltreatment." *Journal of Americal Ad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1: 383-391.
- McFadyen, R. G., and W. J. H. Kitson. 1996. "Language comprehension and expression among adolescents who have experienced childhood physical abuse." *Journal of Children Psychology and Psychiatry* 37: 551-562.

- Riggs, S., A. J. Alario, and C. McHorney. 1990. "Health risk behaviors and attempted suicide in adolescents who report prior maltreatment." *Journal of Pediatrics* 116: 815-821.
- Rohner, R. P. 1986. *The warmth dimension: Foundations of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theory*. Beverly Hills, CA: Sage.
- Salzinger S., R. S. Feldman, M. Hammer, and M. Rosario. 1993. "The effects of physical abuse on children's social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64: 169-187.
- Schaaf, K. K., and T. R. Mccane. 1998. *Relationship of childhood sexual, physical and combined sexual physical abuse to adult victimization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Child Abuse & Neglect* 11: 1119-1134.
- Thompson, R. A. 1990. "Emotion and self-regulation." In R. Thompson(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Vol 36. Socioemotional development* (pp. 367-467).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Widom, C. S. 1989. "Child abuse, neglect, and adult behavior." *Criminology* 27: 251-271.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xperience of the physically abused children

Ko, Me Young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This study i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meanings and nature of the experience of the physically abused children. This is a phenomenological study utilizing van Manen's method to present the children's inner world.

The participants for this study were 10 children, in the age of 8 to 12, who were physically abused by their parents. Data were collected by using semi-structured interviews by the workers who regularly contacted children at the service agencies. Data were analyzed by using 'line by line' reflection by two graduate level students and by the researcher. Eight essential themes were drawn and used for the phenomenological understanding which reveals the meanings given by the children experiencing abuse. There were some suggestions for the abuse counsellors based on these findings.

Key words: child abuse, abuse experiences, phenomenological study, qualitative research, abuse counselling

[접수일 2003. 11. 2 게재확정일 2004. 1. 20]